

‘핑크 난’ 한국타이어... 3세 리스크에 실적 곤두박질

(조현범 사장 구속)

지속 투자에도 2년연속 수익 급감
영업익 5400억, 2016년의 반토막
배당성향은 2년만에 두배로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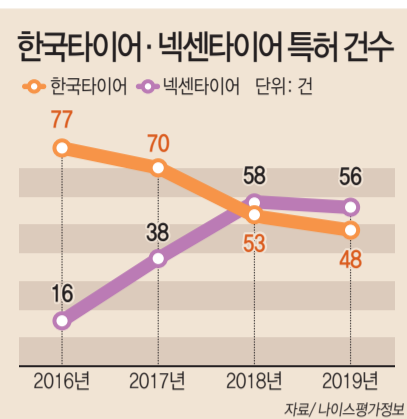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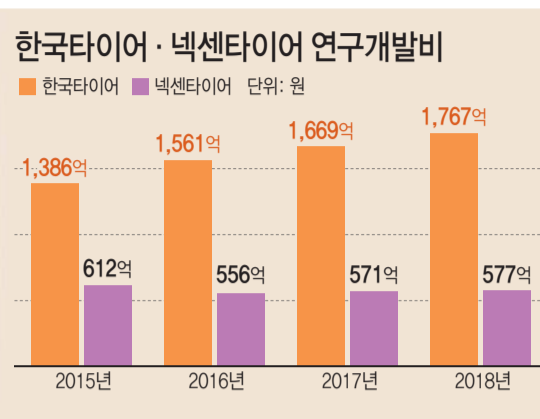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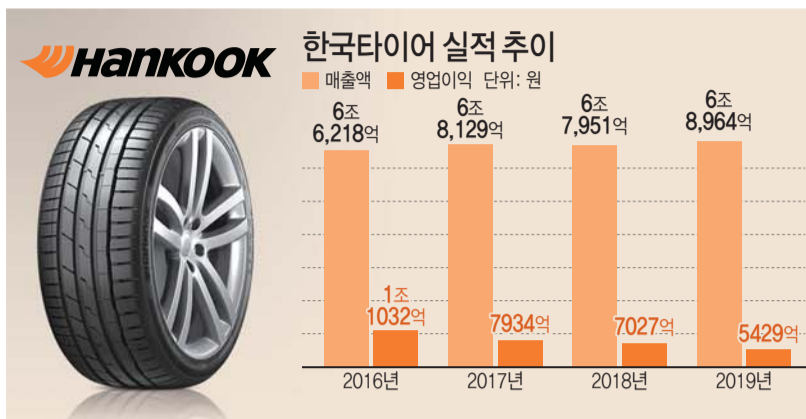
경쟁사 금호, 3년만에 ‘흑자전환’
넥센타이어는 영업익 20% 성장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글로벌 톱티어’에서 멀어지고 있다. 2년 연속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성과는 뒷걸음질 중이다. 오너 일가의 부정과 고배당 정책에도 비판이 잇따른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매출액 6조8964억원에 영업이익 54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6조7951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6조812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매출액을 보면 정체된 상황이다.

특히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전년(7027억원)보다 22.7%, 2017년(7934억원)보다는 31.6%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한 2016년(1조1032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당기순이익도 감소를 면하지 못할 전



망이다. 2015년 6565억원에서 2016년 8791억원으로 늘었지만, 2017년 6055억원에서 2018년 5222억원으로 축소하는 양상이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시장 침체를 실적 악화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최근 타이어업계는 자동차 시장 둔화와 유통 다변화를 통한 경쟁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역성장애 빠진 것은 아니다. 당장, 국내 브랜드인 금호타이어가 영업이익 373억원으로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넥센타이어도 전년보다 20% 가량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후발주자들의 공세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다.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 타이어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개발 분야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48건으로 전년(53건)보다 5건이 나뉘었다. 2018년에는 전년(70건)보다 24.3%, 2017년에는 전년(77건)보다 10% 적었다.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8년 1767억원, 2017년 1669억원, 2016년 1561억원 등 개발비용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만 봐도 2018년 5.53%, 2017년(5.11%)과 2016년(4.71%)에 이어 적지 않게 늘었다.

반면 넥센타이어는 연구개발비에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특허출원 건수로는 한국타이어를 앞지른 상태다.

2018년 577억원, 매출액 대비로는 3.65%만 투자했으면서 특허출원은 58건이나 됐다. 전년(38건)보다 52.6%나 늘리면서 한국타이어를 처음 따라잡았다. 2019년에도 56건으로 한국타이어보다 더 많은 특허를 획득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6건으로 한국타이어(1건)보다 빠른 출발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에 있던 주요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8년 기준 47.14%로 넥센타이어(48.88%)보다 낮

다. 2016년에는 39.16%로 넥센타이어(47.29%)와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만큼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면서도 3세 승계 구도를 본격화한 후 배당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배당성향이 2016년 5.7%에서 2017년 8.3%, 2018년 10.5%로 2년만에 2배로 뛰었다. 앞으로도 10~15% 가량 배당 성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리스크도 심각하다. 한국타이어는 2018년 국제청으로부터 조현범 사장 등 오너 일가의 증여세 포탈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으며 업무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조 사장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구속되면서 선장을 잃은 상태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비상한 상황’... 선제 대응을”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까지 경제 지표들 ‘대체로 괜찮은 상황’으로 봤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보이자 비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 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

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18일)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산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 기업의 투자 활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경영악화’ 두산중, 5년만에 구조조정

45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신청받아 법정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지원키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두산중공업은 18일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명예퇴직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며,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 /연합뉴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두산중공업 역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업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 풍력, 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다”며 “특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은행 대출 연체율 0.36% ‘사상최저’ 수준

금감원, 지난해 말 정리규모 3.3조
신규 발생액 1.2조... 잔액 2조 감소

지난해 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6%로 전월 말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신규 연체 발생액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2조원 감소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50%, 중소기업대출 0.44%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15%포인트, 0.18%포인트 낮아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0.29%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0%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0.41%로 전월 말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